

아시아 · 태평양권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김 주 영
〈현대정유 홍보팀〉

현 대정유가 지난 7월 1일로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였다. 특히, 올 1996년은 현대정유에 있어 남다른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대산공장 20만 배럴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증설이 완료되어 바야흐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산공장 20만 배럴 석유정제시설의 완공으로 현대정유는 생산능력이 일산 11만 배럴에서 31만 배럴로 약 3배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규모면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판도변화를 가져와 중위권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회사의 각 부문에서도 규모를 키워가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지난 1964년 항구도시 부산에서 윤희기유의 생산으로 출발한 현대정유가 현재 일산 31만 배럴 규모의 첨단 석유정제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21세기 아시아·태평양권 초일류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게 되기까지, 현대정유는 많은 역경을 헤쳐나왔고 이를 극복해왔다.

오늘이 있기까지 현대정유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아울러 미래 현대정유의 청사진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1. 국내 최초, 민간자본으로 출발

1960년 극동정유공업(주)이라는 社名으로 국내 윤희유 공급의 효시로 자리 잡았던 현대정유가 본격적으로 석유류 정제업에 뛰어든 것은 1964년 11월 석유류 정제업의 허가를 취득한 이후 부터이다.

부산공장에 3,000B/D 규모의 상압증류시설과 2,000B/D 규모의 감압증류시설을 갖추고 社名을 변경한 극동석유공업(주)이 지금 현대정유의 직접적인 모태가 된다.

극동석유공업(주)의 출발로 본격적인 석유정제업에 진출하게 된 현대정유는 이때부터 직접 원유를 도입하고 조유를 생산하면서 지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순수 민간자본으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정유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특히, 이 공장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극동석유공업(주)의 자체 기술과 노력으로 완공하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고 1967년부터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로망의 건설에 아스팔트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토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극동석유공업(주)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국내 정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석유메이저와의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석유메이저 그룹의 하나인 Royal-Dutch Shell社와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1969년 1월 31일 社名을 극동셀석유주식회사로 변경하게 된다. 셀社와의 합작 이후 고급유탄유 공장을 준공하고 극동셀판매(주)를 설립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현대정유는 주로 유탄유와 아스팔트를 생산해 판매했다.

2. 대산공장의 준공

1977년 셀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합작계약이 해지되면서 셀社가 가지고 있던 지분의 50%를 現代그룹이 인수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現代그룹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극동셀석유주식회사와 극동셀판매주식회사의 社名을 각각 극동석유주식회사와 세일석유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모색하던중 본격적인 정제시설을 갖춘 정유공장의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대규모 정유공장의 마땅한 입지를 모색중이던 극동석유(주)는 당시 서해안 개발계획의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고 산업화의 지역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



금의 대산공장이 있는 중남 대산에 공장의 입지를 정하게 된다.

중남 대산지역은 극동석유(주)가 공장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산업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극동석유(주)가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진입도로의 건설에서부터 공업용수의 확보, 항만시설의 구축등 모든 제반시설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극동석유(주)는 처음부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후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금의 대규모 석유화학 콤플렉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극동석유가 대산공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석유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특히 대부분의 발전소나 산업체들이 연료를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중질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경질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당시 타정유사들은 미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중질유분해시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므로써 국내 석유정제기술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이 시설은 석유류 소비의 경질화 추세에 대처하고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장점과 저유황유의 공급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수지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큰 의의를 지니는 첨단 정제기술이다. 타정유사들은 근래 들어 이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건설하였으나, 현대정유는 이

미 89년부터 이 시설을 가동해 이제는 그 기술의 Know How를 충분히 축적한 상태이다.

88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대산공장은 대산항 공유 수면을 매립한 약 50만평의 부지 위에 건설한 것으로, 주공정 시설과 유틸리티 시설, 부대시설, 중질유분해시설 등 일산 11만 B/D의 규모로 완공되었다.

극동석유가 충남 대산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므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사회간접자본의 건설로 이 지역 경제발전을 이끄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 현대정유의 탄생

극동석유(주)는 대산공장을 완공한 후,社名을 극동정유(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석유정제시설을 갖춘 정유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일반정제부문은 88년부터, 중질유분해시설은 89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90년 2월 공장 주요시설인 중질유분해시설에서 뜻하지 않은 화재사건이 발생해 거의 1년여동안 정상가동이 어려워지는 창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비용과 막대한 화재 복구비용등으로 극동정유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사가 일치하여 전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1993년 6월 30일, 주주간의 합의를 통해 경영권을 현대그룹이 인수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1일, 새롭게 태어난 현대정유는 그룹 종합기획실장을 겸하고 있는 심현영사장과 현대석유화학의 부사장을 겸하고 있는 정몽혁 부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회사의 체제정비에 착수했다. 대산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영업망을 정비하는 등 현대그룹의 위상에 걸맞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에 순차적으로 착수했다.

이에는 대산공장 20만 배럴 원유정제시설에 대한 증설사업과 주유소 CI의 변경, 전국적인 저유소망의

건설 등 회사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진행되 주유소 CI의 변경은 근 10개월의 기간을 거쳐 94년 5월 「OILBANK」라는 새로운 개념의 주유소 브랜드를 선보이게 되었다.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주유소에 브랜드를 도입함으로써 업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현대정유는 앞으로 OILBANK가 주유소의 신개념으로서 단순한 주유소가 아닌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대정유로 새롭게 출발하고 OILBANK로 거듭 태어난 이후, 영업망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현대정유는 기존의 직영판매회사였던 세일석유(주)와 명신석유(주)를 통합, 95년 5월 현대정유판매(주)를 출범시키고 영업망의 일원화로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극동정유 인수당시 4백 30여개에 불과했던 주유소수가 96년 4월말 현재 1천 10여개로 증가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현대정유는 96년 1월 1일부로 정몽혁 대표이사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1세기 사업력 강화를 위한 사업확대 및 사업다각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4. 20만배럴 증설의 완공과 현대정유의 미래

지난 5월 28일, 현대정유 대산공장에서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세영 자동차 명예회장,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통상산업부 관련인사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공장 20만 배럴 정제시설의 준공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번에 준공하게 된 20만 배럴 원유정제시설은 지난 89년에 기취득한 10만B/D 증설허가를 20만B/D로 변경해 완공한 것으로, 해외산업설비를 도입하므로써 약 1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53만평의 부지 위에 총 6천 3백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예정보다 약 5개월 앞당겨 완공하게 된 이번 시설에는 20만 배럴 규모의 상압정제시령을 비롯해 2만배럴 규모의 납사개질시설, 8만 배럴 규모의 등·정유수집 탈황시설, 유황회수시설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4백 90만 배럴 규모의 원유·제품 저장시설과 10만톤급과 3만톤급의 선박이 동시에 입출하 할 수 있는 입출하시설, 그리고 열병합 발전시설 등이 있다.

현대정유는 이번 20만 배럴 정제시설의 준공으로 하루 생산능력이 11만 배럴에서 31만 배럴로 약 세배 증가하게 되어 생산능력면에서 적정규모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대정유는 이번 증설을 통해 최고 수준의 운전 노하우와 특허 공장 기술등을 이전받으므로써 다시한번 국내 석유정제기술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이번 대산공장 증설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병렬식 예열방식(2-TRAIN)은 열효율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쪽 트레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다른 쪽의 트레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설이다. 뿐만아니라, 8만 배럴 규모의 등·경유 탈황시설은 유황성분을 0.05%까지 탈황시켜 초저유황 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공정이어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에도 적극 부응하는 것이다.

현대정유는 이번 20만 배럴 증설외에도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B.T.X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물류비용의 절감과 원활한 유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과 군산 옥계, 목포, 울산등지에 저유소 건설

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저유소망을 구축하므로써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운송해 궁극적으로는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강원도 옥계와 전북 군산저유소의 건설이 완공되어 준공식을 가졌다. 또, 해외 유전개발사업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향후 석유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정유는 이번 20만 배럴 증설의 완공으로 늘어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영업망의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93년 7월 이후 주유소 수가 100% 이상 성장했고, 과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주유소망이 이제는 전국적인 목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같은 내수시장에 대한 판로개척과 더불어 최근에는 일본으로 석유제품 수출을 시작했고,

앞으로는 동남아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현대정유는 궁극적으로 21세기 아시아·태평양권의 초일류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2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가장 짧은 시간내에 아시아권 제일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현대정유의 청사진이다.

현대정유는 과거 반세기동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현대그룹의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기반으로 석유산업의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을 수직계열화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사업과 발전사업에도 진출해 명실공히 종합에너지회사로 커나갈 것이다. ♣

